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옴스테드의 선형 공원

신명진*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릿말

19세기 후반 미국 도시 공원의 양식을 정립한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공원은 목가적 풍경의 이미지로 상징되며, 현대 조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자는 목가적 양식과 케를 달리하는 현대 조경설계에 있어 옴스테드식 설계를 근대의 유물이자 넘어야 할 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공원이 아닌 도시공원 시스템으로 시야를 확대한다면, 옴스테드와 현대 조경 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옴스테드는 공원의 복지 및 교화적 가능성(김민주, 2014)을 주장하며 공원과 도시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았고, 그의 주장은 당시 미국 동부의 지배층인 계몽적 엘리트의 지지를 얻었다. 옴스테드는 특히 공원 시스템 설계에서 '민주적'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공원을 필수불가결한 도시 구조의 일부로서 수립하고자 했다(Kowsky, 1987). 그의 시도가 집약된 1870년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라스(Boston Emerald Necklace; 이하 BEN) 설계는 공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투리 공간을 근린 공간으로 수렴할 목적으로 구상된 통합적 공원 시스템이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BEN 내의 프랭클린파크(Franklin Park) 등이 옴스테드 특유의 목가적 형태를 바탕으로 픽처레스크 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반해, 펜스(Fens)와 리버웨이(Riverway) 등 선형 공원의 역할은 BEN의 '도시 공원 시스템'으로서의 확장이었다. 시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인 펜스와 리버웨이는 보스턴 도심 내외부의 교통 순환을 지원하며, 공원 시스템을 도시의 역동성과 결합시키는 파크웨이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 연구는 BEN 내 펜스와 리버웨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옴스테드의 선형 공원이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수행하는 기능과 도시 구조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공원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선형 공원

옴스테드의 초기작인 센트럴 파크는 당시 맨하튼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노동자 계급에게 불리한 접근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 BEN은 보스턴 도심과 교외의 필연적 팽창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Olmsted, 1870). 따라서 BEN의 모든 요소는 팽창할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 시스템의 구성 단위로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단위는 지형 또는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선형 공원 역시 전체 공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도입되었다. 목가적 공원이 산업화로 황폐해진 도심에 숨을 불어넣는 교화적 공간이었다면, 선형 공원은 도시 구조에 공원 시스템을 결속시켰다. 공원은 공원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되어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고, 이러한 스케일의 확장은 공원 시스템의 인위성을 우리의 시야 너머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펜스와 리버웨이는 파크웨이의 개념과 옴스테드 특유의 목가적 공원의 이미지를 보스턴 펜웨이(Fenway)의 습지와 강변에 재현한 공간이었다. 보스턴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공원이 역으로 도시 형성 전에 생성되었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이 의도된 시간의 비연속성은 공원과 도시의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공원과 자연의 경계마저 무너뜨렸다. 옴스테드의 목가적 공원이 인위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면, 선형 공원은 자생 공간을 암시했다.

애초에 펜스는 염습지 재생용, 리버웨이는 머디강 범람 방지역 자연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성 공간으로 구상되었다. 하지만 BEN 전체를 아우르는 파크웨이는 목가적 공원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반면, 선형 공원과 별도의 경계면이 없어 상호 확장하는 효과를 낳았다. 즉, 선형 공원과 파크웨이는 동질적(homogeneous) 단위로 존재하여 관점에 따라 공원이, 또는 파크웨이가 확장되었다. 기능적으로 파크웨이에 가까운 선형 공원은 옴스테드 전작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옴스테드식 파크웨이는 유럽의 선례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리브킨스키는 옴스테드식 파크웨이가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파리 대로를 미국화시킨 결과물이라 말한다(Rybczynski, 1999: 18). 옴스테드가 언급했던 베를린의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거리의 모습(Olmsted and Vaux, 1866)은 옴스테드의 센트럴파크와 버팔로파크의 파크웨이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유럽의 선례와 같이 옴스테드의 파크웨이 역시 통행로와 유사 공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전자는 도시의 각 지구와 공원들 사이를 연결하여 공원 공간을 확장하고 극대화했고, 후자는 옴스테드가 주장한 "수용적 레크리에이션(receptive recreation)"을 유치했다(Olmsted, 1868).

III. 공원 접근성

옵스테드는 '민주적' 공원 설계 원칙을 통해 도심 공원이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교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리트적이며 한정적인 공원 프로그램은 노동자 계급의 공원 활용을 제한시켰다. 대신 옵스테드는 공원이 의미하는 가치 - 위생, 건강, 교화 등 - 를 장려할 목적으로, 공원 경계 공간의 확장을 통해 공원 접근성을 확장했다. '민주적' 원칙이란 평등성(equality)보다 공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의미했다.

칼 쾰만의 교외 선형 공원 유형 분류 체제에 대한 연구(Kullmann, 2011) 결과는 선형 공원과 경계에 대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쾰만의 연구는 다수 선형 공원의 분석을 통해 선형 공원의 물리적 특징과 도시 구조와의 역학관계를 구체화했다. 쾰만은 포화 상태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도시는 비점령 공간인 폐허가 된 도로, 기차길, 하천 등 산업화 시대의 유물에서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이런 비점령 공간은 경계(boundary)나 가장자리(edge) 등에 존재하기에, 결과적으로 현대 대도시의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는 선형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계선으로서 구상된 선형 공간이라도 사회 발전에 따라 도시 구조의 영향을 받아 정체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유형 분석에 따르면 BEN의 선형 공원은 덩불(thicket)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탐험적이며 산책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고, 그 형태는 복잡한 구조와 깊이를 갖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선형 공원이 도시 구조의 단절이 아닌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BEN 선형 공원은 도시 구조와 역학관계를 통해 공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숲과 돌담으로 경계선을 긋는 목가적 공원과 달리, 펜스와 리버웨이는 투과 가능한 경계로서 도시 구조와 역학관계를 통해 공간을 진화시켰다. 경계 공간의 공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옵스테드가 이미 예견한 바 있다. 뉴욕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를 구상하며, 옵스테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닌, 공원 테두리를 따라 계획된 파크웨이야말로 주변 공간을 공원의 일부로 흡수하고, 공원 공간으로서 재구축하며, 결과적으로 공원의 영역을 늘리고 확장할 것이라 여겼다(Olmsted and Vaux, 1868). 옵스테드의 주장에 따르면, 선형 공원은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정체성 생성에 기여한다. 경계면이 아닌, 경계 공간으로서 선형 공원은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공원의 역할과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BEN 선형 공원의 자연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역할은 감소하고,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역할은 강조되었다. 파크웨이와 상호 확장된 선형 공원은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 구조의 녹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IV. 맺음말

센트럴파크가 등장한 이후 한 세기 반이 지난 현재, 옵스테드식 조경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경진(2003)에 따르면, 옵스테드의 공원, 특히 BEN의 선형 공원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도시 내 물리적 공간유형이자 자연 인프라스트럭처시스템으로서 논의될 때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에메랄드 네클라스를 사례로 삼아 옵스테드식 선형 공원이 도시 구조와 역학관계를 맺으며,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해명하고자 했다. 옵스테드가 주장했던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공원 개념은 교화적 목적의 목가적 공원이 아닌, 선형 공원에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옵스테드식 선형 공원은 현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도시의 선형 조경의 이론적 근거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민주(2015) 프레데릭 로 옵스테드의 공원에 나타난 복지 개념.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 조경진(2003) 프레데릭 로 옵스테드의 도시공원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26-37.
3. Beveridge, C. and P. Rocheleau(1995) Frederick Law Olmsted: Designing the American Landscape. New York: Rizzoli.
4. Cranz, G.(1978) Changing roles of urban parks: From pleasure garden to open space. Landscape 22: 9-18.
5. Kullmann, K.(2011) Thin parks / thick edges: Towards a linear park typology for (post)industrial site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6(2): 70-81.
6. Kowsky, F.(1987) Municipal parks and city planning: Frederick Law Olmsted's Buffalo Park and parkwa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46(1): 49-64.
7. Olmsted, F.(1870) Public parks and the enlargement of towns. Journal of Social Science 3(1): 171-205.
8. Olmsted, F.(1997) The people's park at Birkenhead, near Liverpool. C.E. Beveridge and C.F. Hoffman, eds. The Papers of Law Olmsted: Supplementary Series Vol. 1 Writings on Public Parks, Parkways, and Park System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 Olmsted, F. and Calvert Vaux(1866) Preliminary report to the commissioners for laying out a park in Brooklyn, New York.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Commissioners of Prospect Park, Brooklyn.
10. Olmsted, F. and Calvert Vaux(1868) Report of the landscape architects and superintendents. Eighth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Commissioners of Prospect Park, Brooklyn: I. Van Anden's Print.
11. Olmsted, F.(1868) Letter to William Edward Dorsheimer, Oct. 1, 1868. Beveridge and C. F. Hoffman, eds. The Papers of Frederick Law Olmsted: Writings on Public Parks, Parkways, and Park System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2. Rybczynski, W.(1999) Why we need Olmsted again. The Wilson Quarterly 23(3): 15-21.